



07-48 (통권 175호)
2007.11.30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규모 1,250억 달러 추정
- 10월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경영 노트

- 듀폰의 성장 비결

사회 트렌드

- 미혼 직장여성의 유학 열풍

저널 브리프

- 부족한 회귀 금속, 일본의 빠른 대처

洗心錄

- 나는 인재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인가?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규모 1,250억 달러 추정

-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인한 모기지 업체들의 손실이 커져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OECD는 내년 모기지 업체들의 손실로 귀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규모를 1,250억 달러(금리조정 대상 모기지 규모 8,900억 달러 기준 손실을 14%)로 예상하고 있음
 - 한편 프라임과 서브프라임 등급 사이에 있는 ‘알트 에이(Alt-A)’ 모기지까지 포함할 경우 손실 규모는 2,000~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 이에 따라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는 미국과 유로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10월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 10월 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가 전월 수준을 보인 가운데 서비스수지 적자가 축소된 데 힘입어 흑자규모가 전월대비 2.6억 달러 확대된 25.6억 달러를 나타냄
 -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중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선박 등의 통관·인도 조정으로 상품수지는 전월보다 소폭 증가한 37.4억 달러 흑자를 나타냄
 - 반면 서비스 수지는 해외여행 지급액이 전월과 비슷한 가운데 특허권 등 사용료 지급이 감소한 데 기인하여 적자규모가 전월보다 3.3억 달러 축소된 14.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한편 자본수지는 은행부문의 해외차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직접투자수지가 큰 폭 유출초를 보임에 따라 19.1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냄

□ 듀폰의 성장 비결

- (개요) 듀폰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끊임없이 변신해 왔기 때문에 글로벌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 듀폰은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1955년 ‘500대 기업’을 선정한 이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상위권에 랭크되는 초우량 글로벌 기업임
 - 설립 205주년을 맞이한 듀폰은 지난해 매출액 274억 달러, 순이익 32억 달러를 기록하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사업 변신)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회사의 대표 상품까지도 매각할 정도로 사업 변신의 유연성을 보여 왔음
 - 19세기 초, 화약제조회사로 출발한 듀폰은 화약산업이 쇠퇴하자, 20세기 초에 화학과 에너지 사업을 시작하여 대표적 화학회사로 성공함
 - 1990년대 말부터 ‘종합과학회사’로의 변신을 시도하면서, 2004년에는 당시 매출의 25%를 차지하던 섬유 부문을 매각하는 대신, 농업과 식량 부문의 유망한 종자회사인 ‘파이오니아’를 인수함
 - 현재 듀폰은 농업과 식량, 안전·보호, 전자·통신, 코팅과 컬러 기술, 고기능성 소재 등 5가지 사업군을 구축하고 있음
- (성공 요소) 듀폰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한 것은,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의 솔선수범과,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있었음
 - 리더는 솔선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직원들도 변화에 동참한다는 인식 하에, ‘미래를 읽는 능력’이 중요한 자질로 평가되어 왔음
 - 듀폰은 현재 전 세계에 75개 연구개발(R&D)센터를 두고 있으며,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시사점) 현재의 수익성에 안주하기보다 새로운 시장 수요를 발굴하고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신사업 탐색에 지속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함
 - 다가올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하여, 새로운 수익 창출과 지속성장을 위한 사업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는 도전적 자세가 요구됨
 - 듀폰은 향후의 메가트렌드로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재생 가능한 에너지, 안전에 대한 욕구, 커뮤니케이션의 증가 등을 꼽고 있음

□ 미혼 직장여성의 유학 열풍*

- 업무 숙련도가 무르익은 5~7년차 직장인들 사이에 ‘돌연 유학’ 현상이 잇따르고 있는데, 미혼 여성 직장인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함
 - 유학닷컴 조사에 따르면, 5~7년차 직장인의 유학·어학 연수는 지난 해 보다 30% 가량 급증하는 추세임
 - 그런데 이러한 돌연유학 트렌드의 남녀 비율은 30대 70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여성 중 미혼 여성 직장인의 비중이 80%에 이룸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돌연유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임
- 이들은 결국 유학이나 연수를 통해 학업과 재충전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특징을 보임
 - 그래서 미국의 샌디에이고나 샌프란시스코, 캐나다의 밴쿠버, 호주의 브리즈번, 필리핀의 세부처럼 휴양지에 있는 학교나 어학연수기관이 선호됨
 - 영화와 멀티미디어로 유명한 밴쿠버 필름스쿨, 세계적인 요리학교 르 코르동 블루 등도 유학 문의가 많은 곳임
- ‘돌연 유학’의 원인을 취업대란이 낳은 후유증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는데, 취업대란 때문에 적성에 맞지 않은 직업을 선택했다가 뒤늦게 유학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임
 - 장기적으로 보면 1년의 투자가 이직이나 전직 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기업 고용의 불안정성도 직장인들이 돌연 유학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라는 분석임
 - 대부분의 기업들은 업무 능력을 자세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업무 연한도 5년 미만으로 크게 짧아 꾸준히 다닌 사람에게 별 혜택이 없는 구조라는 것임
 - 따라서 1~2년 쉬며 영어라도 배우면 몸값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임

* 이 글은 한국경제신문(2007.11.30)에 실린 기사를 정리, 재구성한 것임.

□ 부족한 희귀 금속, 일본의 빠른 대처*

- 최근 일본은 하이테크 기술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에 지원하는 조건으로 남아공 정부로부터 희귀 금속 광산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로 함
 - 또한 보츠와나, 남아프리카 등에서도 일본은 희귀 금속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음
 - ※ 희귀 금속 : 디지털 가전제품에 필요한 백금, 코발트, 니켈 등을 지칭
- 일본은 물론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공업화와 희귀 금속 보유국의 수출 통제에 따라 희귀 금속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 일본 기업들의 주력 수출 품목(디지털 가전제품, 자동차 등)들은 거의 모두 희귀 금속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희귀 금속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가 필요
 - 또한 중국·중남미 개발도상국의 고속 성장 및 공업화에 따라 희귀 금속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한편 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희귀 금속 수출 통제 움직임이 나타남
- 일본 정부는 자원 외교 강화, 희귀 금속 확보 대책 수립을 통해, 기업은 원가절감, 신소재 개발 등에 의해 희귀 금속 부족을 극복하고 있음
 - 자원 외교 강화 :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를 중심으로 남아프리카 각국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여 희귀 금속의 안정적 공급 루트를 확보
 - ‘희귀 금속 확보 종합대책’ 수립 : 국가 비축 대상 품목을 7개에서 대폭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비축량을 늘림
 - 신소재 개발 : 일본 기업들은 비철금속이나 희귀 금속의 사용량을 줄여 원가 절감을 추진함과 함께 희귀 금속을 대체할 신소재 개발을 확대하고 있음
 - 닛신제강의 경우 니켈을 대신해 크롬을 활용하여 니켈 사용량을 낮춤
- (시사점) 일본과 주력 수출품목이 유사한 국내 기업들 또한 희귀 금속을 대체할 신소재 개발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희귀 금속 확보를 위한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이 글은 『한경비즈니스』(2007.12.3)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 재구성한 것임.

□ 나는 인재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인가?

얼마 전에 미국 포천지는 지금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업 CEO들을 더 나은 환경을 창조하고, 현재의 흐름을 바꾸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한 혁신가형 CEO라고 규정하였다. 세계미래협회(World Future Society)에서는 앞으로 판단, 직관, 윤리, 영감, 친밀감, 상상, 배려 등과 같은 기술(skill)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 많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동서고금의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성공은 사람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우수한 인재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 정작 ‘나는 인재를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히 고민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싫으면 관둬라’라는 식으로 리더 자신의 독단으로 인해 어렵게 구한 인재를 제대로 활용해 보지 못하고 결국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레일 라운즈(Leil Lowndes)는 정상에 서고 싶다면 사람을 얻어야 함을 피력하고, 그에 필요한 82가지의 ‘사람을 얻는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는 몇 가지 기술을 추려본 것이다.

- 인간미 넘치는 약점을 드러내라
-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를 알고 있어라
- 달변가보다는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라
-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라
- 상대가 즐겨 쓰는 표현에 귀 기울여라
- 상대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라
- 등 뒤에서 칭찬하라

셀과 도움 없이는 혼자서는 에베레스트의 정상에 서지 못한다. 어렵게 유치한 인재가 계속 나의 동반자로서 남아있도록 지킬 수 있을 때에만 자신의 성공과 행복이 보장된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만큼
즐거운 것은 없다.”**

마르셀 프루스트 (1871~1922) : 프랑스 소설가